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유마상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따라 절에 많이 다녔어요 불교가 된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에서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밖으로만 향했던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며 보잘 것 없는 나를 미워하며 살던 저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썼던 마음의 결과이며, 나의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이고 내가 먼저 바꾸어야 환경이 바뀐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현명한 내게도 불성이 있구나...

세상이 온통 달라 보였습니다. 불법을 모르고 방황할 때 누가 불법을 가르쳐 줬더라면 나의 생이 일찍 달라졌을텐데... 이 법을 알기 전의 고통받던 나를 생각하니 아직도 생의 방향을 틀라 해매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머리속에서 장애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다. 농아구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정확하게 통역을 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기꺼이 하고 싶어 1982년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는 수화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 서울농아복지회에서 수화를 배우기 위해 부산에 와서 부산농아복지회를 매일 다니면서 농아인들에게 직접 수화를 배웠습니다. 서울수화와 부산수화가 다른게 있는지 서울 부산을 오가며 점검하여 완벽한 수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상인들의 세계와 장애인들 세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아인들의 생활은 거의 단순노동과 날 품팔이로, 실속 직장을 구했다 해도 정상

인들에 비해 봉급이 적었으며 그것도 몇 달씩 미루고 안줘서 이직률이 높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일반인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모든 면에서 손해보고 피해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상인에 대한 불신의 벽이 두터운 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가톨릭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에 불자라는 것을 숨기고 같이 생활하면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매일 거울을 쳐다보며 뽀샤시하고 환한하던 눈 코 입 귀 팔 다리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도 제 역할을 잘해내는지... 그때야 저는 비로소 정상인으로 낯익은 부모님의 고마움과 이렇게 멋진 내가 아직 장애를 입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임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몇날 몇밤 울면서 뽀샤시했습니다. 이 성한 몸으로 평생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이 마음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갖지 못한 고마움이었고 그분들이야말로 저를 사랑하게 한 부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다니다 보니 그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거더라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아픈 느낌을 표현하지 못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집세를 못내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손내밀어 그들을 돕는다고 도왔지만 그들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 그러던 어느날 한 농아인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종이에 적어 보이면서 이것이 귀신이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

강 주 수 <부산 농아복지회 수화강사>

더러면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노트에 적기도 하고 수화도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과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시. 나는 사실을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고통의 원인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다. 교회가고 성당가니까 왜 농아인이 되었다고 하냐? 하나니 큰 뜻? 그래 그 큰 뜻이 무엇이냐? 농아인으로 태어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왜 농아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이대로 죽고 싶으냐? 불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 나를 따라 다니면서 같이 공부해보자. 일단 배우고나서 그때 당신들 갈때 가라.

왜 그렇게 눈물이 내던지. 우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 농아인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4명이 처음으로 불자가 되었습니다. 4명이 공교롭게도 성당에서 간부직을 맡은 사람들이어서 수녀님과 신부님이 그들 부모를 찾아와서 성당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교를 믿고 부터 많이 확실해지고 달라졌다. 그런데 어찌 내가 성당으로 도로 가라하느냐. 나도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를테라 공부해 보고싶다고 했더니 그 농아인 어머니가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했을 때 정말 기

뻘이 있어야 된다. 불자는 이것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불교용어는 이곳을 찍으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힌트로 지혜, 8정도 등이 만들어졌고 미간백호를 찍고 기존수화 '님'이라고 쓰는 지금의 스님 수화는 그 자리에서 이박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정경'을 '박연'하게 울바로 보다'로 통역하다가 미간백호를 찍고 기존수화 '보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인 제3의 눈으로 사람의 실상을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 특히 유의하여 불교수화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23일 불교수화 발표회때 불법을 한법으로, 법문을 한법이 굴러가다로, 수행을 마음공부로, 지옥을 도끼마귀로 등등. 문제있는 수화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발표된 39개에서 2개를 더한 41개 불교수화를 농아 교사에 살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떤 농아불자가 불법을 한법으로 사용하다, 타종교인이

쓰고있는 불교수화를 모아 서로 비교 검토하여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화를 뽑아 검증하고 공인된 것을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교를 만난 것을 고마워 하는 농아인 불자들에게 그들이 훗날 우리들이 잘못 만든 불교수화를 다시 고치는 이종고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농 아인불자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불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로부터 불교를 바로 배워 농아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포교사가 되도록 완벽한 수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 일에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제가 법승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스님이 계시던 경북 어느 절에서 영남불교 종교대학생 수련회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농아불자들에게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종교대학생들에게는 우리 농아불자들을 보여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느낀만큼 봉사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신문이 96년 10월15일 창간 1주년을 기념해 공모한 신행수기 당선작이 결정됐다. 불자들의 바쁜생활에 도움이 되고 신심을 북돋기 위해 미려한 신행수기 공모에 총 105편이 응모, 6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 대상(유마상)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
▲강 주 수 <부산시 금정구 남정동 48-2 부산APT 107호>
- 중단협의회장상 저너머에 행복이**
▲이 회 명 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주공APT 1609-804>
- 본사 사장상 소중한 만남**
▲김 영 미 <경기도 화성시 김일동 한전시책 2호>
한마음의 등불
▲정 정 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4호>
- 특별상** ◇천태종 총무원장상=아내의 성과 부처님 가피 ▲목영태 <경기도 안성시 죽산리 438-2>
◇불교진흥원 이사장상=자식을 잃고 만난 불법 ▲노윤택 <경기도 안양시 석수1동 182-2 주공APT 2-406>

현대불교신문사

내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았을 때 세상이 온통 달라 보였다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 줘야지...' 그래서 1982년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했습니.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에 농아인들과 함께 가서 불교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수화는 많은데 불교수화는 3~4개 밖에 없는 것과 모두 육 비속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이 자식 가만히 있어'로, 스님을 '공짜 대머리'로, 불교를 '목박'으로...

불 교수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 그래서 같은 불교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 수화책을 구해서 제가 다니던 연구원의 이기영박사님을 찾아가 봤습니.

이기영박사님과 돌아가신 서경수교수님께서 그 많은 수화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 보시고 불교수화는 없다고 하시며 이박사님께서 미간백호(제3의 눈, 지혜의 상징)를 가리

키며 불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불자는 이것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불교용어는 이곳을 찍으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힌트로 지혜, 8정도 등이 만들어졌고 미간백호를 찍고 기존수화 '님'이라고 쓰는 지금의 스님 수화는 그 자리에서 이박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정경'을 '박연'하게 울바로 보다'로 통역하다가 미간백호를 찍고 기존수화 '보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인 제3의 눈으로 사람의 실상을

너희가 믿는 종교가 한법이나 둘이면 뭐라 대답하느냐 걱정하는 소릴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장을 촉구하는 글을 여러 관계자들에게 보냈고 모불교신도회에서는 이사회때 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고 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불교수화 발표회의 주역이신 스님이 이미 발표된 불교수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고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불교수화는 누가 만드는데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만드는데 목적이 아닙니다.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도록 하니 잘못 전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종교계, 학계, 불교를 알고 수화를 잘하는 사람들과 농아불자들이 힘을 합쳐 뜻에 가장 적합한 수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일선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장애인에 몸의 일부가 불편할 뿐이지 능력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농아인불자 몇명과 함께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수화하는 저를 보시고 스님은 맞다 이거다. 내가 헛살았구나 하시면서 저와 뜻이 같아 같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 오가며 저는 수화를 가르쳐 드리고 스님은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농아인들이 어떨다고 연락한 하면 곧바로 달려와서 주례도 서주기도 농아인 일터에도 따라가시는 등 농아인에 눈을 겨운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스님계시던 절에서 농아인들만 구성된 제1회 백화도량 정진대회를 열어 발우공양, 참선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같이 수영도 하면서 농아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스님은 은사스님의 평범한 기대를 저버리고 농아인들을 위해 진짜 출가를 하겠다며 거처를 경주 남산의 주인 없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옮겨서서 불교수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어릴 때면 며칠 밤을 잠 못이루며 연구해도 아직도 못만들었다며 자신의 머리로 벽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땀 뚝뚝 떨어지는 수화를 만들어 너무 기뻐 잠 못이루셨다고도 하셨습니다. 돈 한푼없이 밥을 굶으실 때도 있었고, 마음사람들에게 얻어 잡수시며 정진하시다가 집주인에게 쫓겨나 그 추운 겨울을 바위틈에서 방석 1개로 지내셨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면합관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도과(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개설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9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사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6년 1월 22일까지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대주사 앞 삼보원: 732-9904 부산 영랑도서: 816-9500
조계사 앞 삼보원: 424-0801 부산 영랑도서: 252-8558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과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6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 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별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 |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 무전종교(전포교원장),종범스님(승가대교수),인환스님(동국대학교),최봉수(동국대학교),성민스님(동국대학교),서용길(동국대학교),한정섭(불교회교원장),정민호(동국대학교),홍원식(동국대학교) |
|--------|---|--|
|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회사상, 화엄사상, 빈아사상 | 정락스님(전포교원장),권기홍(동국대학교),한보경스님(동국대),임도스님(전포교원장)오형근(동국대학교),김영태(동국대학교),박종(불교통신대학장),이민(동국대학교),정승식(동국대학교),권탄환(동국대학교) |
3. 모집방법 및 전형
-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 고 |
|-----------------------|-----------------------|--|-----------------|--------------------|----------------------------|----------------------------------|
|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 불교를 접한 신
형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민영합관 사진 3매 (교재제출) | 1996년 1월3일~1월31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 통신반은 지방거주
자녀출석수강이여
려운지반 가능 |
4. 개강일시
1996년 2월3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및 동산반야회 사무국(732-1206~8, FAX:732-1207)
◎서울: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불서보급사(246-4321)
◎대구: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보문서점(257-0161)
◎광주: 금강불교대학(671-0451)
본대학 사무국(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6. 원서접수처
※특전사항: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사를 거쳐 조계종 포교사자격을 수여함.

대한 불 교 조 계 동 산 불 교 대 학